

부록 1

## 〈야생화〉 해설

김동권\*

### 대본 입수 경위

본 작품은 필자가 건국대학교 출판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한국희곡문학총서’를 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하러 다니던 중에 한국학 관계 연구자로부터 도움을 얻어 볼 수 있었다. 원래 작품 소장자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귀중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영휘 선생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 서지적 사항

본 작품은 15.5cm×23cm 규격으로 첩필로 쓰고 이를 프린트한 공연 대본이다. 대본은 겉표지와 속표지의 지질이 서적지인 것이고, 作意와

---

\* 용인 송담대학 교수

梗概 그리고 때·장소·등장인물 부분과, 본문 7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길이는 2막 3장이다. 작의는 작품 제작 동기 부분이고, 경개는 작품 줄거리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이 작품이 일제에 의해 대본 검열을 받은 것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일제 시대에는 모든 공연물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대본 앞장에 제작 동기와 줄거리를 첨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이 대본은 사전 검열을 받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쓴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보 장두월>과 작품 길이와 내용 면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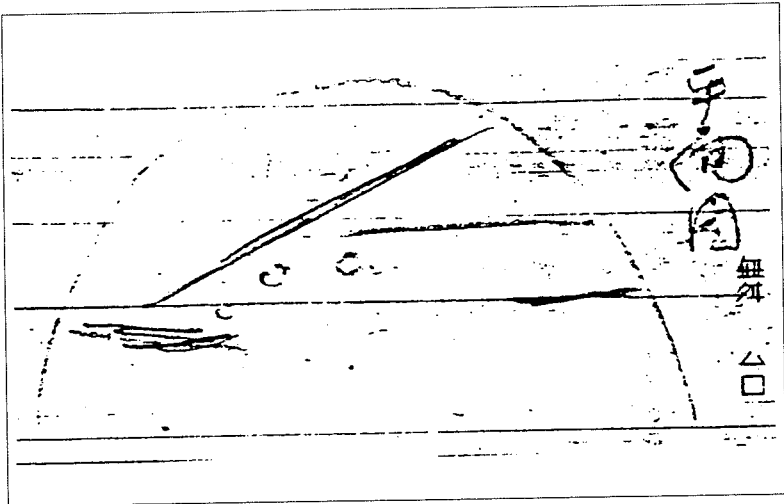
## 작품에 대하여

송영은 소설가로 출발하여 희곡을 주로 쓴 작가이다. 작품 성향을 보면 프로 문학 구성원답게 노동자를 소재로 한 것이 주류를 이루며, 이후 자본가를 풍자한 작품이 나온다. 이러한 바탕 위에 1930년대 들어서 동양극장과 중앙무대 등에서 일련의 대중적인 성향의 작품을 쓴다. 중앙무대 창립 공연에 상연된 <바보 장두월>은 <야생화>를 주변 상황과 주동인물인 남녀의 인물 성격만을 바꿔놓은 유사성을 지닌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의 대중적 작품에서 제기되는 작가와 작품의 이념성 문제와 함께 대중화 문제에 대한 것을 제기해 주며, 작품이 단순히 읽기 위한 희곡이 아니라 무대화되었을 때 관객에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 전달이 쉬운 특성을 지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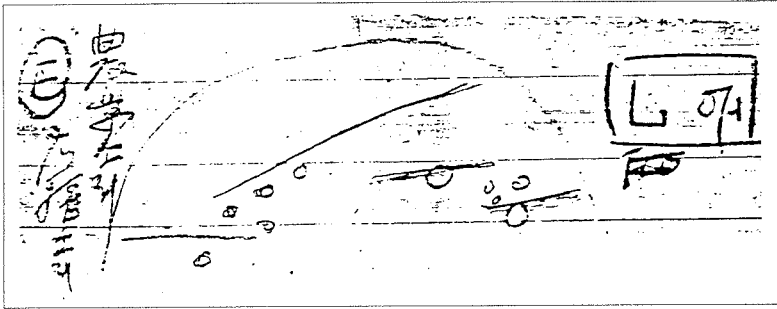
### 수룩한 〈야생화〉를 읽는 방법

작품은 원래 대본 상태와 다르게 약간의 편집이 되어 있다. 이들 편집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작품에는 한자가 적절하게 섞여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표기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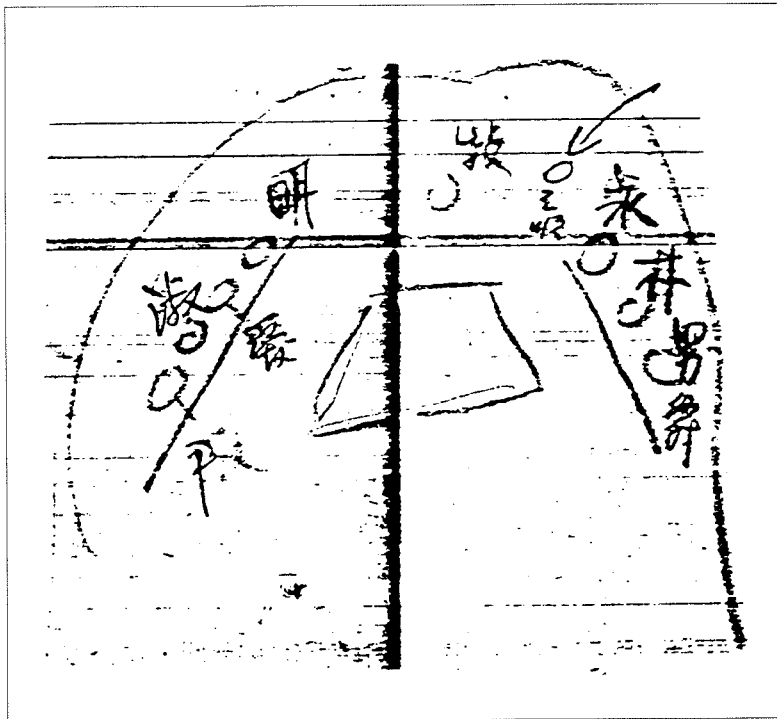
그리고 대본은 연출자인 나웅과 안영일에 의해 첨삭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연출자가 삭제한 내용은 이탤릭체로 표기하였고, 연출자에 의해 추가된 사항은 고딕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 놓았다. 원래 연출 대본이었던 관계로 대본에는 등장인물의 등·퇴장과 주요한 무대에서의 인물의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생략했으며, 무대 평면도와 1막과 2막의 무대 배치도와 주요 장면이 있었는데, 무대 평면도와 1막과 2막의 무대 배치도는 첨부하였다.



무대 평면도



1막 무대 배치도



2막 무대 배치도

## 野生花

宋 影 作

作意<sup>1)</sup>

정직과 근면은 사람으로서의 길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잔뜩 갖고 있어도 또한, 지위나 재산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유약한 그리고 경솔한 도시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순박, 건전한 야생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쩌다 돌연한 기회에 이 소녀로부터 고귀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불건실한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自立 自行的 길을 새롭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挿話を 풍자와 암시를 갖고 일부 우유부단하고 게으르고 약한 사람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무언가의 암시를 전하고 싶은 것이 이 극의 제작 의도인 것이다.

梗概

산처녀 億尺이는 남성적인 체력의 소유자로 동시에 순박, 순정의 소

---

1) 작의와 개요는 일제의 대본 검열을 위한 양식으로 일본어로 쓰여져 있다. 작의와 개요가 있다는 사실은 이 대본이 일제에 의해 사전 검열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

유자였다. 도시의 청년 白은 병을 앓은 후 요양 중이었기에 이 산에 오게 되었다.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 완벽미의 도시인을 보고 가슴을 두근거렸다. 그도 그녀의 건강미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반응답으로 그녀와 결혼할테니 도시(시내)까지 와라하는 말을 남겨놓고 도시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것을 진실로 믿고 아버지와 동네사람의 반대를 뿌리치고 도시로 갔다. 그때 마침 백청년의 약혼식이 성대히 열리고 있었다.

가득한 약혼식장의 손님들은 그녀를 조소했다. 백청년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다.

야생의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 비통하고 분한 눈물을 흘렸다. 그리하여 쓸쓸하게 그 장소를 빠져 나왔다.

백청년은 동정심이 생긴다. 그러나 고귀한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경박스러움을 후회한다. 그리하여 부모, 친척의 반대를 무릎쓰고 그녀의 뒤를 쫓는다.

## 野生花 二幕 三場

時 ; 現代

處 ; 山中, 都會

人物

역척이(山골處女, 20세) 金素英<sup>2)</sup>

金万甫(그의 父, 산양군, 60세) 孟晚植

2) 등장인물에 대한 배역을 맡은 배우 이름들이다. 실제 배역을 맡았던 배우의 실명을 적어놓고 있다.

- 千鈞(역척이를 片慕하는 사나이, 28세) 全雲峰  
奧芻(村民, 25세) 成光龍  
七星(村民, 24세) 金圭亨  
北戌(處女, 19세) 金誠實(牟貞嫻)  
立分(處女, 18세) 金福善  
白永濶(都會의 사나이, 26세) 劉野英  
白男爵(그의 父, 58세) 崔仁壽  
洪書房(그집 老僕, 55세) 金滿  
朴氏(그의 母, 52세) 牟貞嫻  
永愛(그의 누의동생, 21세) 金吉子  
永淑(그의 누의동생, 19세) 黃正子  
王順(그집 奴婢, 17세) 尹喜善  
尹祐植(老實業家, 60세) 朴根형  
尹明子(그의 딸, 22세) 權海卿  
吳牧師(45세) 朴麟

## 第 1 幕 五臺山

### 舞臺

오대산복 밀림지대 늙은 포수김만보의 외딴집이 있는 평퍼짐한 산복 상수로 삼간일자집의 일부, 부엌과 방들이 일자로 붓고 한칸마다 방문이 나고 부엌문밖에는 누간의 독개그릇

하수편으로 정자나무 뒤로는 밀림(프른 한울이 겨우 보인다) 하수로는 산하에서 올노는길 상수 집앞과 뒤로는 산상으로 올라가는 통로 단오 가절 고산식물이 마당잔디에 셋기여있다.

○이집이 이산에서는 제일높은 막다란집 이집에서 한고개너머가면 (약일키로) 오육호로된 산촌 다시거기서 십리나 내려가야 주채소와 먼

소가 있는 조그만한 장터거리

늙은 포수 만보의 외딸 억척이는 남자이상의 육체와 의기를 가진 여장부 동리씨름판에 가서 한둘째를다트는 처녀, 순박하고도 쾌활해서 산속에서 이름이 헛날리고 있다. 어머니를일직여이고 편부슬하에서 성장했다.

○아버지 만보는 강직하나 용감한 야생적노인 타협성이 없고 허위를 물느고 우직한사나이

○이러한부녀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약간의화전과 수렵으로 생애한다. 그리고 조금들도 안해없는 숲음 어미없는 숲음을 나타내지들을않으나 서로 물내들 쓸쓸한한숨들을 쉬기는 한다.

전날억척이가 산돼지한마리를 밧매든 꿩이로 때려잡어서 다시 억척이의 용명은 산중을울녘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만보가 그 돼지고기로 안주를 삼고 귀리밥을 짓고 막걸리를 사오고해서 아래고개너머동리(오육호촌) 남녀를 청해놓고 자축잔치를 열었다.

더군다나 오늘은 천중가절, 단오날이다.

第 1 場 端 午

◇정자나무밑으로 남자들이 있고 집앞으로는 처녀와 촌부들이 섰다

◇만보는 방문턱에 거러앉았다

◇억척이는 나무뿌리 (지상근)에가 걸터앉았다

◇부억문앞에는 먹고난음식상이 있다.

◇방문옆에 돼지껍질이 걸녀있다.

◇천쇠와 환돌씨름을 하며 모두들 응원들을한다.

○개막전에 농악소리 차차, 적어지며

○개막전 우습소리 천쇠야, 환돌아, 천쇠야, 환돌아

개막

○지지 마라 환돌아, 환돌아, 천쇠야, 천쇠야 떠들고들야단이다.

○천쇠 냉겨쳐라. 천쇠 냉겨쳐라, 일동

(조금 일진일퇴하다가)

○환돌이 너머진다. 천쇠뿔낸다.

**칠 성 천쇠 놈 잘한다. (일동 웃는다) (농악을 두들기며 지화자 지화자)**

천 쇠 인제는 없니 몇놈이든지 덤벼봐라

환 돌 에구분해

일 동 해

천 쇠 분하거든 또 덤벼라(덤빈다)

**남 녀 (크게 운는다)**

환 돌 싫다 이자식아 (빗슬 빗슬 뒤로순다)

◇「못난자식다보겠군」 「엑기이바보야」(촌민들 놀리며 촌녀들 웃는다)

만 보 환돌아(크게)

환 돌 네

만 보 이리온(거러온다)

환 돌 왜그러세요(각거히순다)

만 보 엑기 이 못난자식아 (한번들너머친다.)

**남 녀 (운는다)**

환 돌 왜이러세요(기여뒤로가며)

만 보 사내자식이 남에게 진단말이나

일 동 (웃는 중에도 위압된다.)

천 쇠 그림읍쇼 왜 남에게 짐나가 하----

- 만 보 죽드래도 지면안된다.
- 천 쇠 그림읍쇼-- 애들아 정말이지 나는 요담노릿날에는 장터에  
가서 황솔타오고 말넌다
- 칠 성 이놈아, 장터에는 사방에서 장사패들이 모혀들어
- 천 쇠 사방키냥 천지장안이 다 끌어와보렴 - 아졌씨 그러쵸
- 만 보 허---
- 천 쇠 왜 웃기만하세요 정말이지 저만한나이의 놈으로써는 제웁  
길칠 놈은 없을 것 갓했소같애요
- 환 돌 까불다가 독깨티린다. 이자식아(일동 운는다.)
- 천 쇠 뭐야 이자식아(덤비려고할 때)
- 억척이 애 천쇠야
- 천 쇠 응
- 억척이 그래 네가 이 산속에서 쥘장사냐
- 천 쇠 그림
- 억척이 그림 나고 한 번해보자
- 천 쇠 뭐야 - 누가 가지내하고씨름을한다드냐
- 칠 성 그라기말이지
- 촌민들 어디해보렴 해봐 - (비꼬는소리)
- 처녀들 별아이도 다만어 (서로들소근거린다)
- 북 술 그래해보라, 그래해보라**
- 억척이 (성을내며) 아니 여자게집엔는 씨름을 못한다드냐 히, 별 캐  
캐 묵은소리들이, 다만어 - 어서덤벼봐라.
- 천 쇠 애가 왜이래
- 억척이 뭘, 왜이래?
- 천 쇠 글세 애 억척아, 네가 아모리 억척스러워서 山돼지색기를  
때려잡기 까지는 헛다만은 -
- 억척이 왜, 색기야 - 저게 색기야

천 쇠 글세 색기든 에미든, 엇덧키 얼떨김에 한마리 때려잡었다  
만은 그래도 너는 女子야  
만 보 **게집엔** 여자는 씨름은못한다디? 어디 한 번 결워보렴  
천 쇠 아저씨계서도 이러세요  
만 보 어서  
천 쇠 너, 닷쳐도 난몰는다  
억척이 네격정이나 해  
촌민들 천쇠야 남자망신식히지마라  
처녀들 억척이 산돼지잡듯해라  
환 돌 천쇠야 잠간가만있어. -. 우리 남자편하고 女子편하고 내  
기하자  
북 술 하자  
환 돌 만일 억척이가 지면 엇덕한다  
칠 성 여자편에서 소리한마디하기로하자  
촌민들 조타, 조타  
여자들 (서로돌아본다)  
억척이 조타고들해라  
여자들 조타, 조타  
북 술 그럼 천쇠가 지면  
환 돌 우리들도 소리하지  
억척이 소린일 없다 그까진 똑배기깨지는소리를 누가듣니  
환 돌 왜 똑백이야  
억척이 소리대신에 여자편에다대고 세벳절한번해라하기야  
여자들 **조타, 조타**그래 그래 그거좃타  
촌민들 (서로치다본다)  
천 쇠 왜들 어름거리니거리려 조타고들해라 고? (팔을든다)  
촌민들 조타

만 보 그럼 내가 심판이다  
일 동 *히야 히야 아억척아*(손벽) (서로들응원)  
◇잠간동안 一進一退하다가 천쇠너머진다  
◇여자편 환호  
◇남자편 낭패, 여자 지화자 종타  
천 쇠 다시 하자 - 이번에는 풀뿌리에 걸넛다  
여자들 안된다 안된다  
남자들 **다시해라 다시해라 다시다 다시다**  
억척이 조타(덤벼든다)  
◇더 쉬웁게 천쇠를 넘겨친다  
여자들 억척아 억척아- **잘한다 잘한다-**  
**남 자 (운는다)**  
환 돌 엑키 이 못난자식아  
천 쇠 뒷기싫여 이자식아(뒤로물너슨다)  
남자들 (경환들을한다)  
북 술 어서 절들이나 해라  
여자들 애햐 애햐 (한면서절바들 태세를 취한다) (꿀을올린다)  
환 돌 절할게 어뒷서  
칠 성 절대신 소리다 **소릴새**  
촌민들 소리다, 소리다  
여자들 안된다,안된다  
북 술 그런법이어뒷니  
환 돌 왜 없어  
만 보 (크게)이놈들아, 절해  
환 돌 절을 엇뎛케함니가?  
만 보 너이놈들도 사내들이나 - 한 번 言約을 헛스면 목이다라  
나도 시행을해야하지. *는뵤야.*

촌민들 (중얼거린다. 어름거린다)  
만 보 어서  
천 쇠 아젓씨 엇떡케 참아 女子에게 -  
만 보 땃기싫여타  
◇ 천쇠 以下男子 一同 女子에게 절을한다  
◇ 女子들웃는다  
억척이 오. 모시고잘들지냈니(女子들운는다)  
천 쇠 (이러나며)뫼야 이년아  
억척이 왜 그래  
환 돌 아니 저걸넌을  
억척이 그럼 병어리처럼 남의절을 그냥바더야 **웁으나조흐나**  
환 돌 영히참 - 이자식아 너 때문에, 다, 이럿타  
칠 성 자식 女子니가 일부러젓지뫼야나보다  
천 쇠 내가 일부러젓서도 네 손주색기다  
환 돌 저거 신랑노릇히는녀석은 골병들어죽을나갓다  
촌민들 (웃는다) (男子들도운는다)  
만 보 (女子들에게)애들아 녀이들 사내 절만뵈고 그냥있어야쓰니  
답례로 소리들이나하렴  
억척이 이것은데 무슨 답례에요  
천 쇠 그럼 장원례로해라  
촌민들 장원례다  
만 보 그럿치 장원례지  
억척이 그럼할기 애들아 엇질가  
복 술 하작구나 처녀들의합창(민요풍)

1. 신고산이우르...

함음차더나는 소리-

구고산 큰애기 반붓짐만싼다네

에랑 에랑-에헤야 에여데여

내가 몽당 내사랑이고나

(촌민까지 화성이된다)

2. 너는 나로 알기를--

흑싸리 겁지로 알지만

나는 너 알기를

공상명월로 인다.

에정에정 에헤야 에 현데여

내가 몽탕 내사랑이구나

◇산이래서 군호소리 우--우--

천 쇠 누가 올라오나봅니다 우--우--

소 리 우--우--

억척이 우 우

소 리 (두목소리) 우-- 우--

억척이 여러사람 목소릴세 (하수편으로 전부 몰린다.)

만 보 환돌아버진가

환 돌 아버지는 장터에 나가셋는데요

만 보 그럼 누굴가

소 리 우-- 우--

북 술 양복쟁이들이다

천 쇠 면소손님인가보다

억척이 면소손님이 뭇하러 여기까지 올는다드냐

북 술 산군나리기 쉽다.

처녀들 그럿타 옷이 누럿타

환 돌 아이구 그럼엇떡하나 우리집부엌에 나무하나 비여다는게

있는데

**여 자** (여자들 운는다)

칠 성 아니다 아니다 금점군인가보다

만 보 금점군이 왜 군호를하고 올놀가

소 리 우- 우-

만 보 우- 우- 애들아 손까지 흔드는구나

억척이 뒤에 따라오는 작자는 허덕허덕한다

**여 자** (운는다)

천 쇠 아 근처사람은 아니다

만 보 누구요-

소 리 거기가 김서방택요

만 보 그랬소- 내가 김서방요

소 리 우- 우-

만 보 우- 우- 누구냐

억척이 우리집을 아나본데

북 술 애 하이칼나들이다

환 돌 그런데 뒤에서는 젊으니보다 앞에오서는 늙은이가 더 싱싱  
허다

억척이 얼굴이 눈빛가치 하얗치?코나

천 쇠 얼굴하얀 하이칼라가 조호냐

**여 자** (운는다)

억척이 누가조택소- 이 못난녀석아

**남 자** (운는다)

환 돌 명절날에 떡대신 옥만먹는구나

천 쇠 자식-

**일 동** (운는다)

북 술 저 등에다 질머진건 뭐야

입 분 모자도 알성굿다  
 만 보 어서- 올노슈  
       누런양복에 각본치고 헌태고자쓴 홍서방 집행이집고 리타  
       샤크를 미였다. 수건으로 땅을 쓰시며  
 흥 아이구 이러데서 엇덧케사노  
 백영기의 소리 줌, 쉬여가겠소  
 흥 허 젊은양반이 이늙은논만도 못하시거든 네,네 물요  
 만 보 거기 맨 물인데  
 흥 개울물을 잡순답디가  
 역적이 (박아지에 물을떠가지고 나오며)입도 되게 높지(흥에게준  
       다)  
 만 보 천쇠야, 네가좀 갖다줘라  
 천 쇠 네 (뺏는다)  
 흥 미안하오  
 천 쇠 괜찬소(퇴장)  
 만 보 그런데 대관절 댁들은 누구슈  
 흥 아-참 인사가 느껴서 미안하구노  
       나는 서울사는 홍서방요  
 만 보 그럿소. 나는 이 산골에사는 김만보요  
 흥 그럼 영감이 바로 유명하신 포수 김서방이슈  
 만 보 유명하진 안치만 내가 바로 기요  
 흥 참 성화함은 익히들어 잘아오  
 만 보 별말씀을 다 허슈- 그런데 왜 오셋소 녹혈 자시러 왔구료  
 흥 그럿소, 저기 앉어계신 젊은양반이 우리권서방님요, 서울서  
       도 유명한 백남작대감의 외아드님요  
 만 보 그래서 저렇게 벨벨하는구료. 일골이 하얏코  
 여 자 (일동 운는다)

홍        번디귀골로자라서 약한분이 더군다나 올봄에 증병을 칠코  
          나세서 저렇게 뗏다우. 그래서 녹혈이 좇타고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영감을 차저왔다우

만 보    잘 왔소 녹혈보담은 저혈이 훨씬 상등요

환 돌    그까진 피를먹으러 이렇케 멀니오셋서요

홍        그까진 피가뒤요 그게 큰 보약이라우

만 보    보약보담도 선약이라다

환 돌    그럼 우리들은 신선이게요. 특히면 사발로 디리키니까요.

### 남자 (2, 3인 운는다)

홍        그러길네 이렇케들 장사패들이야뇨. 아이구 색시들까지 튼  
          튼하게 생겼군그래 허--

### 여자들    이구망칙헤 하

生<sup>3)</sup> 백영기 (등산복, 리구삭구, 등산화) (등장)아이구 훗났는걸

천 쇠    (박아지를 들고 뒤쪽으로온다)

生 홍    서방님 댄습니다. 바로이영감 그 영감이올시다

生 백    음 그런가. 영감 처음뵈소

生만보    피차일반이요 오신내력은 잘알엇소

          그럼 오늘은 쉬고 내일브터 자서보슈- 뜨근뜨근하고 싯빨

          건눔을 한탕 캐마시면은 담박에 뱃속이 핫핫해지는게 대

          단죇소

백        처음먹어도 비위에 맞소

만 보    그게비위에 안마지면 엇뎃하겠소.

백        그런데 이견처에 정한 여관은없죇

만 보    산속에 여관이 당했소

백        할아범 그럼 큰일났소

3) 이 부분은 대본에서 삭제했다가 다시 살린 부분이다. 원고 교정 부호인 생자를 사용하여 다시 살린 부분 표시를 하고 있다.

홍        그러게 이런대를 오시면은 고생을약으로 하셔야한다고 안  
             했습니까

백        그럼시다

촌남녀, 수군거리고 구경한다. 각급 비웃는 웃음도있다.

홍, 백, 짐들을 버서논다

홍        그럼 여관은 숙소는 어디다정한다

만 보    산속에 여관이당했소 우리집 옷방에서쉬구료, 정하지는않치  
             만-

홍        서방님 그럴가요

백        나는할어범 하라는대로만하겠소

홍        그런데 영감 오늘이 무슨 잔치날이슈

만 보    단오날이야노

홍        아 참 그릇큰

만 보    그리고 우리딸년이 엇그적계 밭에서 김을매다가 산돼지한  
             놈을 잡었조 어서 그래 그 고기로 동네잔치를 버렸다우

홍        뭐요. 따님이 산돼지를 잡다노

만 보    저기 저놈말요

백        따님도 총을 잘눅습니까?

만 보    팽이로 때려잡었다우

백        네에?

홍        이제다 정말이슈

환 돌    우리 산골사람은 거룻말업쇠다. 상게도 여기서 씨름판이 버  
             러졌는데 억척이가 상등이뻘소다.

백        억척이라노

만 보    우리딸이름아라우, 여복해야 이름이 억척이겠오.

홍        그 참 억척이구노

만 보    여복해, 이름을 억척이로 적겠소

- 억척이 아버지 승중 작작봐요(퇴장)
- 홍 아이구 저 거름거리좀보지 아조 평지갓치 훌훌날너올나가는 데
- 억척이소리애들아 이리들과
- 처녀들 그래(웃고들 뛰어서 퇴장)
- 백 야아. 위대한 건강미로구다
- 만 보 건강미가 뭐요 안남미갓튼 양쌀이름요
- 홍 그건 쌀이름이아니라 즉 곡식이름은 아니고 그러니가 말하자면 건강하단말요
- 천 쇠 무슨소리세요?
- 백 네, 그말인즉 생기가 발랄해서 생의 황희가 약동한다는 말이에요
- 환 돌 엇덧탄말에요
- 만 보 저 양반말은 모두가 외국말갓해서 쇠통 못 알아듯게군
- 홍 여부가있소 우리는 노-들어도 각금 어정정한데
- 백 허허허(아유하듯) 뭐 그렇게 어려운말은 야노
- 만 보 그럼 이왕이면 못척 어려운말한마디 써보슈
- 홍 **양장피, 잡채, 덴뿌라, 탕수육, 애피, 쫄파, 끈데뿌라이, 덴뷰라**  
(영어흥내)
- 일 동 (대소. 가벼운 증오가섯긴 웃음이다)
- 만 보 이건 또 뭐야
- 홍 양국말요
- 만 보 여보 우리는 구구로 늙읍시다
- 백 할아범 모르는분들앞에서 그러면은 정말영어인줄아루
- 홍 허--
- 천 쇠 애들아 우리는 고만들가자
- 만 보 더들 놀다 **들기려무나가렘**

천 쇠 오늘 노리는 다 틀녔습니다  
환 돌 송충이는 솔뉘이나 먹으러가세  
촌민들 아젓씨 잘먹고감니다  
홍 아니 우리들 때문에 그러슈  
천 쇠 천만에요 실컨노랏스니가 일을 또해야쥬  
환 돌 밤에 또 올놀게 서울 애기나 좀 들너주슈  
홍 많이들오슈 와요  
천 쇠 내려감니다  
만 보 잘들 내려가게  
일 동 네 (인사들을하고 노래들을불노고 웃고떠들면서 되장)  
백 혀어 그이들이기분이상해서 가는 모양이지  
만 보 괜찬소  
백 그러기에 이런데와서는 태를 부리면 안되요. 할아범  
홍 언제 내가 엇쨌습니가 서방님께서 전갓디터뤄니해서 그랬쥬  
만 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기가 상당한데 엇떡한다  
홍 모기장가지고 왔다우. 그러지만 김생 때문에 창을 여러노코  
잘수가 있소  
백 김생요들이 많다쥬?  
만 보 뭐 원악 깊은 산이돼서 부대, 산돼지 호랑이  
백 네 호랑이요?  
만 보 허----- 사내양반이 호랑이소리만듯고서도 이럿케 놀넨단  
말요. 우리 부녀는 노- 이럿케 지내왔는데  
홍 그참 담들은 크슈  
백 할아범 우리 장터거리로 내려갑시다  
만 보 괜찬소 우리들이 잇는데 무슨걱정이슈  
홍 글세요 원! 나도 좀 재미는없는 편이다  
만 보 예키 여보 우리들은 만물의영장인 사람이아노

- 홍 하긴그랬소. 혹시물너죽어도 다, 팔자소관이지  
만 보 자. 어서 옷들이나 벗고 세수들이나하슈 예구 잔둥이들이  
다 **젖었군 부르텃군** 그래  
백 아 참. 할아범(**육살을 내려놓며**)내 속사쓰좁 꺼내 쓰레파하  
고-  
홍 네(**육살을 내려놓며** 사쓰와쓰레파를 꺼낸다)  
백 (가라입으면서) 수건하고 비누하고요  
홍 네 (꺼낸다)  
만 보 이건 뭘하는거요(쓰레파를 집는다)  
백 집에서 신는거요  
만 보 이건 소용없소 (한편으로 **상수편** 내던지고 집신을한걸레주  
며) 여기서는 이게 맞춤요  
백 네(신는다) 발꿈치가 압흔데요  
만 보 **몇번 실어나면 구더내려서 앞으지않소**  
홍 **아닌게아니라**  
만 보 얼마 동안은 고생이좀 되리다 **그렇지만** 산판에서는 집신이  
일등임네다  
백 **괜찬어요- 대야나 좀 주시죠 어딴있죠**  
만 보 저 아래 샘물에 가면 체물대야가 **흘뎡하.요죠**  
백 네! 자연으로 도라가라(방백)  
만 보 내 저녁반찬거리 작만해오리다(총을민다)  
홍 어딴가슈  
만 보 뭇이든지 닥치는대로 한놈잡어 오리다  
홍 우리들은 혼자있구  
만 보 대낮인데 **엇뎡탄말씀요(퇴장 상수)**  
백 **할아범 무시무시해서 어디 여기잇겠소**  
홍 **참고개십시다**

백 정말이지 나도 여기서사람들갓치 건강만 해졌스면 좃켓소  
 흥 한참게시면 저절로 그럿케되겄소  
 백 과연좃소(내려다보며) 아 저 소나무사이로 내다되는 프른한  
 울 줌보  
 오- (백국새소리) 야, 저 백국새소리 할아범 참 우리여기  
 잘왔소  
 여기서는 약을 안먹어도 저절로 낫겄소(여호소리)에구 할아  
 범 저게 무슨소리요  
 흥 여호소리요  
 백 네(흥에게로 달려든다)  
 흥 서방님 담을크게 먹으세요  
 백 그래, 인고단련하고 힘을길러서 여호를 퇴치하자.<sup>4)</sup> 할아범 세  
 수나하러 갑시다  
 흥 가시구료. 신내는 뭐 ---- 괜찮습다.  
 백 엇덧케 혼자 간단말요(잡어쥘다)  
 흥 이거 큰일났구뇨(쥘녀간다)

(2인퇴장)

(억척이 나뭇잎에다가 石蜜을 따가지고 북술이와 촌처녀들과 등  
장)

억척이 (아모들도 없다)아버지 아버지다들어드러갓슬가  
 북 술 섭섭하겠구나  
 억척이 망할년갓트니.(부엌에 들어가서 대접을 가지고 나온다)  
 북 술 아니 한번보고 담박에 꿀을따다주니  
 억척이 이년아 손님이니가 대접을해야지  
 입 분 그럿켓지(부엌을 드레다 보구 같이나오며)

4) 편집자가 임의로 일본어로 된 부분을 직역한 것임.

일 동 (웃는다)  
억척이 (대접에다 꿀을담는다) 실컨들해라  
북 술 너 암만그래도 서울사내는 일없다  
억척이 누가 엇쨌다고그래, 이 식집못 같년들아  
입 분 아니, 왜 *우리들*나까지 꺼서 욱을하는거야  
북 술 아년게 아니라 그건사내가아니라 갈보색시가트라  
입 분 똑 얼굴이은 분발는 것같이 **같지않구**  
억척이 어린애처럼 손이 물쿤물쿤하고  
북 술 너 언제 만져봤니  
억척이 이망할년야, 만져보지 않으면 몰는다드냐  
북 술 너무 그래지말아 천쇠녀석이“낮”가지고 날뿔나  
억척이 또한번 넝게치지  
처녀들 (웃는다)  
입 분 **웃으며**이게 뭐냐(쓰레파를잡는다)  
억척이 이걸 신는건데  
북 술 이름이 뭐냐말야  
억척이 너는뭐야?  
북 술 너는뭐야?  
억척이 신이지뭐야  
입 분 이걸 뒤꿈치가 없어서 엇뎛케 신니  
억척이 왜 못 신니(집신위로 그냥신는다. 몇번거러단긴다)이거 올라갈땐 괜찬어도 내려갈땐 벗겨지겄다  
북 술 별난신도, 다, 만타.나, 한번 신어보자  
억척이 가만있어  
북 술 어서  
억척이 그럼 한쪽만 신어봐(한쪽을 버서버린다)  
북 술 (신는다)이거 거북하다

입 분 이런 망쇠년들가트니- 똑 절둑바리들갓구나  
북 술 저도 신고십어서  
입 분 똥을 엇땃케 싸고  
(백과홍 등장한다)  
북 술 (버서버리고) 애들야, 가자  
입 분 억척야 잘있거라  
치녀들 퇴장(웃는소리며러간다 빼꼼내다보고웃으며 도망간다)  
억척이 저런년들봐(버서버리고 부엌으로들어간다)  
백 (쓰레파를집어보고) 할아범 아조 흙투성이가됐소  
홍 저런 망년이 걸은년들봤나 이리주슈 그거 잘됐소 인주소 탁  
거더릴게  
백 아조 원시적이거든  
홍 원시적이아니라 주착적이요, 그게뭐요 말만한게집애들이  
억척이 (나온다 다소羞態가띄었스나 역시 대담하다) 하도 알긋길  
레 좀 신어봤는데 그랫길로서니 원- 쯤이상해서 신어봤서  
요  
백 팬찬어요소  
억척이 이거나 먹어봐요아저씨 이것잡주세요(홍에게 꿀대접을준다)  
홍 이견뵈야  
억척이 석칭이지뵈요  
홍 (손구락으로 째어먹어보며)애, 그놈 맛조타  
억척이 혼자만 먹는담 잡주세요  
홍 참- 서방님 이거좀 잡서봅쇼, 아조 천하일품요  
백 (손구락으로 째으며) 이견 날로먹어도 위생에 해롭치안홀  
가  
홍 앗다. 그러면 꿀도 꼬러먹는답디가(작구 째어먹으며)그것맛조  
타

백 (먹어보며) やあ素晴らしいな(작구먹으며)참조한테.  
홍 색시 이거 어서낫지  
억척이 바위에 가서 따왔서요  
홍 오라 그래서 석청이겠다- 서방님 이것도 아조 몸을 보한담  
니다  
백 참 조한테  
억척이 또 따올까요.  
홍, 응 그래.  
억척이 그렇지만 한발 삐끗하면 낭떠리지에 새오나라한다우  
백 고만두우뒤요  
총소리  
백 에구머니나(놀낸다) 어둡기 시작한다  
억척이 아버지가 저녁거리를 작만하는구나  
백 그 총소리는 더 크게 들니는데  
억척이 바구니와 호미를 들고 나온다  
홍 어될가지  
억척이 감자 패가지고올게요 (다름박질나간다)  
백 할아범 꿀잠 꿀잠  
홍 애, 가시내야. 꿀이나 많이따와은응도따오너라  
억척이소리 네  
백 할아범 저도 새로내다보이는 석양 하늘좀 부우(뺨국새소리)  
아- 저 뺨국새소리, 할아범 우리참 여기 잘왔소  
그리고 내일은 꿀도 따러갑시다.  
암 L. O.

第 2 場

제1장보다 한달이지낸 뒤  
성하 이춤걸

만 보 총을 닦고 앉았을 때  
천 쇠 지게지고 등장  
明

**산새소리, 삐꾹새소리**

천 쇠 아저씨  
만 보 어서 올 **나오게** 노느라  
천 쇠 아니 그자식이 돼지피를먹으러오지를 앓고 억척이하고 기  
름치러왔나요

만 보 왜 또 그러는거냐  
천 쇠 지금도 오다가보니까 저넘어 골작우니 **에서 단들이** 개울물  
속애다 **단들이** 발들을 잠그고앉었서요 **깁쇼**

만 보 잘들노는구나 그 늙으니는 어디있가고  
천 쇠 그 능청 **마진맛게** 늙으니는 먼뱃트로 담배대만물고 도라단  
기는데요 **뭘**

만 보 그런데 왜 그러니  
천 쇠 왜 그러는게 뭘니까. 그대로 두시면 꽤나큰일납니다

만 보 어림없다  
천 쇠 어림없는게 뭐예요. 얼굴이 반주구레한 서울자식들이란것  
은은 게집피 내기로는 유명하지안어요

만 보 그렇지만 우리 억척이는 **아무한테나 너머가지 안는다 생생**  
**하단다애**

천 쇠 그러치 안어요. 억척이가 기운은새도 실상은 어림이었어요

썩둥거리라나요

- 만 보 아니 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러는거나  
천 쇠 옛재상관이안돼요. 동네색시를 타곳놈에게 뺏기면 분하지  
않어요. 더군다나 서울깍쟁이에게  
만 보 서울놈이라고 다 깍쟁이겠느냐 듣기 싫어!  
천 쇠 아젓씨게서도 그자식들한테 환장을하셋군노  
만 보 뭐야 이놈아  
천 쇠 고만두세요. 꽤니 나중에 後悔하십니다 (나가며) 호랑이한  
테 물너나 죽어라 망할자식갓트니라라고 퇴장 하수  
만 보 흥, 그참 그녀석이 밧작 열이올났는걸  
북술이와立分. 바구나들을 들고 집뒤로 등장  
입 분 억척아  
만 보 없다  
북 술 어디갔서요?  
만 보 저넘어 개울속에 있다나보다  
립 분 빨내갔서요  
만 보 서울손님들하고 발을씻는다고하드라  
두치녀 아이구 망측해라  
북 술 아젓씨 그런걸 그냥 내버려두세요.  
만 보 그래도 우리 억척이는 사내녀석보담도 더 꾀꾀하니가 괜찬  
다  
립 분 그래두요-- 아젓씨 억척이는 요새 한번도 저이들하고는  
도라지도 안캐러단기는데요 캐러안단기는데요  
만 보 작구와서 가자고 그러렴으나 (나가려고한다)  
북 술 어딴가서요  
만 보 산에 올라간다 (퇴장)  
북 술 왜 다른데는 딱딱한영감이 딸한테는 그러케 물느냐

립 분 그래도 외딸이아니냐  
 북 술 아조 서울富者집아들이라지  
 립 분 그러치만 억척이가튼것을 색시로삼을뜻하나  
 북 술 그리고 별서 장가를 갖서도 두서너번은 갖슬텐데.  
 립 분 참 서울 富者집아들들은 색시가라치기를 밥먹듯이 한다드  
 라  
 북 술 그런데 억척이는 아조 미친모양이지  
 립 분 아마 고자식이 살살 찢게지  
 북 술 아이구 남의걱정할게 꿰있니 우리는 도라지나 캐러가자  
 립 분 이왕이면 개울위로가작구나 구경이나해가면서 캐게  
 북 술 도라지 캐러간다고 핑계핑계 하더니  
 립 분 맑은물에 발잠그고 소근거리기만 하누나

◇ 下手로 퇴장

◇ 꿈광거리는소리

백 (벌떡어리고 곤충망을들고 다른박질 등장)  
 억척이 (뒤따라와서 백의팔쭉지를붓잡고) 왜 이리케 허둥대요  
 백 이거봐, 그게 산돼지야냐  
 억척이 그건 독기요  
 백 독기뛰는소리가 왜 그러케 커  
 억척이 크긴 뭐 커. 바스럭만했는데  
 백 아이구, 이 땀좀봐  
 억척이 이게 무슨 사내요  
 백 나도 서울서는 상당한사난데, 여기와선 이풀인걸  
 억척이 그래도 참 왓슬때보담은 용이 다뻐소  
 백 처음에는 엇뎠는데  
 억척이 노루색기처럼 발~발 - 헛지  
 백 액키

억척이 난 엇댓소

백 똑 암소갓드군

억척이 지금은?

백 암호랑이갓구

억척이 어흥-

백 이구, 무서

◇ 二人 대소

억척이 여보, (정말 나하고 살태요) 저.. 웃는다

백 그럼 왜

억척이 정말 정말 장가 안갓소

백 내가 거긔말하나

억척이 나가튼 촌떡기도 서울가서 살수있나

백 왜 못살어

억척이 양복도 질줄몰느고.....는데

백 차..... 배우지

억척이 신식말도 몰느는데 몰느고

백 다 괜찬어. 억척이는 건강해서, 기운이 세단말이다.

억척이 그런데... 왜... 나를조와하오

백 건강해서

억척이 기운이 세단말이구료

백 그렇지)

억척이 뭘 내가 무슨 기운이있다고 늘그래(자궁)

백 억척이

억척이 움

백 첫재 우리부인이되면 이름을 가라야해

억척이 왜

백 양반댁새앗씨 이름으로는 너무 상 돼

- 억척이 그럼 뭐라고하노  
 백 月姬라고 하지  
 억척이 그건 무슨소리요  
 백 달속에서 나온 仙女갓단말이지  
 억척이 내가 그러케 입부우 (교를부른다)  
 백 그럼----
- 억척이 그럼 **정말** 당신들은 내일떠나가요  
 백 그럼  
 억척이 그러면 나는 오는 秋夕날에 혼자 따라가란말요  
 백 그러타니가그래-秋夕날 꼭와야해-그러면 내 혼인준비를  
 다 해놋코 기델일테니
- 억척이 오늘 아버지한테 **두다말할테야-뭐 말할가**  
 백 나간뒤에 해  
 억척이 왜  
 백 내가 붓끄러우니가 그러치  
 억척이 아버지도 들으시면 꼭 조와하실걸  
 백 그럼  
 억척이 당신아버지도 조와하실가  
 백 조화하실테지
- (◇ 뒤 뒤따라들어오며)
- 홍 늙은놈만 내버리시고 혼자들오시면 엇딥해요  
 백 산돼지가 나오는줄알고그랬소  
 홍 나는 산돼지무섭지안어요 인무서운가요  
 억척이 노인도 무서워요 이 뭐가 무섭담.  
 홍 오라. 산김생도 늙으니는대접은하니까요할줄안다 그런말이  
 구면.  
 백, 억척이 운는다

북술의 소리 억척아

억척이 응

북 술 (등장) 도라지캐러가자

립 분 가жат구나

억척이 가자 - 우리저녁엔 도라지나물 해먹어요

백 그거 조치

북 술 너, 너무한다

억척이 패니 경치 (주먹을든다)

(◇ 女子들 퇴장)

홍 서방님, 엇찌자고 이러슈

백 왜?

홍 엇던게 뭐야요 이런데 처녀들이란 고지곳에요. 정말따라올  
노오면 엇덕합니까

백 뭘 제까지졌들이 따라올나구. 汽車도 한번 타보지 안은것들  
이--

(◇ 천쇠 집뒤로 나오다가 엇듯는다)

홍 일부함원이면 五月飛霜이란소리도 못들엇서요

백 재미가나는길 엇덕하오

홍 서방님은 재미로 그러지만 그처녀는 진정인테야엇덕해요

백 아니 내가 그웁새같은거한테 손꾸락 하나나 댓을상싶은가  
그래게 널아춤에 획 떠나가면 그만 이야노

홍 쉬-- 큰소리 내지마슈 공연히 그것들이들으면 큰일나오. 산  
돼지까지 때려잡은 장사패가 무섭지도안소

백 호--- 참 이번 여행은재미있는길

홍 재미는 커녕 서방님 아조 매마드똥똥보가 되셋습니다

백 아닌게 아니라 참 튼튼해졌소 (두팔뚝을쳐든다)

천 쇠 (참다못해서나오며) 뭐야 이도적놈의자식아 (지계를 벗고

팔을 갖는다

홍 왜 이놈이 이래

만 보 누구더러 이놈이래-- 아니 우리산골 처녀를 처녀들이 너이들의 작난감이 아니다인줄 알아.

백 누가 작난감이랬니

만 보 다. 들었서 아 뻥뻥뻥한 도적년의 자식이 아니- 너이놈이 겨우 서울 양반이냐? 이게 신식 청년들이 한하는 노릇이냐. 이 뻥뻥아도리를 돌려놓자식 갖트니

홍 여봐라. 네가 잘못들었다

천 쇠 왜 잘못들어 분명히 이귀로 들었서 무식한놈은 귀까지 먹은줄아니 - 너이갓튼놈들은 혼이 좀 나아 한다(덤벼든다)

백 여보 여보

천 쇠 뭐야 요자식이

홍 (가루막는다) 왜 이러는거냐

천 쇠 (홍을 둘러머친다) 늙은것은 가만있어

홍 엑쿠 이자식 사람친다(잘 일어나지를 못한다)

천 쇠 요놈아 뭐 엇찌고엇찌 (떡살을 쥘다)

백 약이 좀들어봐

천 쇠 다 들었다. 너, 이런버릇어디서 맺니-

(◇ 백, 反抗을 하다가 쓰러진다. 홍이 러나서 말하다가 또 쓰러진다. 천 쇠 더 기승을 피운다.

◇ 백, 또 이러나서 다라나다가 또 붓잡힌다 너머지고 업치락뒤치락 한다)

홍 (멀니 산을 쳐다보며) 억척아 억척아, 사람살뉴 사람살뉴. (다시 천쇠를 때린다.) (또 마저 너머진다) 사람살뉴. 사람살뉴

억척이 (다름박질 登場) 아니 저자식이--

홍 애 억척아

억척이 천쇠야 (억개쪽지를잡어이르킨다) 이게 무슨짓이나

(○ 입분과 복술이도나온다)

천 쇠 동 (힘은쓰지않으나 분해서찌근찌근한다) 글세 애, 억척아

억척이시 뒷기싫어 **이녀석아**(뺨을친다)

홍 1 동 동시 (白을 이르키며)다치지않으셨서요

백 1 시 아이구

(◇ 洪, 白을방문턱에안치고 흠을터러준다)

천 쇠 너, 왜, 나만때리니

억척이 그럼 왜 약한양반을때리니

천 쇠 그런게 아냐. 너 저식이 전도적놈의 자식이다

억척이 **뒷기싫어 뭐야!**

만 보 너, 저자식이 너하고 정말 혼인할**난혈**는줄아니 너 셋뺨만  
거짓말이다 너를 작란감모양으로 잠간 재미로 너한테 저  
ຈ짓말하는거야

백 아니다 그런게 아니야

천 쇠 웨, 아냐, 너이들이 지금안그랬서, 애, 억척아, 내가 지금  
다들었다

억척이 거짓말말아, 저이는 그런이가아냐

천 보 웨, 아냐, 내가지금 다 들었다. 너 패니 저자식에게 속으면  
안된다.

억척이 속아도 조와

천 보 아니-- 애가--

억척이 걱정을말**아고**, 어서, 가

천 보 **가긴한다 흥**--(지게를지고)(白을보고)맞나보자. 요, 말썽한  
녀석아(퇴장)

억척이 (성이 툭툭이난다)

— 사이 —

억척이 여보 내가 정말 날 작난감으로아루이우?  
백 아냐 千万에, 왜니 그자식이 지어서 하는말야  
홍 그럼, 색시, 이거봐 우리서방님이 어디로보든지 거죽말을할 분야  
억척이 (풀니며)정말요(天真해진다. 울듯이웃는듯이. 조금도 男性的 旧態는 없다)  
홍 그럼 늙으니도 거죽말하나  
억척이 万一 당신이 (白에게) 나를속히면 재미적소  
백 그럼  
억척이 우리들은들이단단이 맹세했소겠지요  
백 그럼  
處女들 (웃는다)  
억척이 (處女들을보고) 아이구, 너이들도 여기서서 봤구나(붓끄러 하나 조화하며)애, 어서 도라지들이나 캐러가자(처녀들과 갖치退場)  
處女들 (노래소리)  
홍 이노릇을 엇덕해요  
백 末日아침에는 일즉 떠납시다.  
(◇ 멀리서 처녀들의노래소리)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바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호호호) 閉幕

## 第二幕 都會

舞臺 白男爵邸 應接室

화치한 실내장치 / 유화 가구 전화 옷거리 소파 테이블 의자 등  
上手, 內室로 通한 門 下手 外部로 通한門

中央正面 배란다. 內庭으로通한다

○ 一幕二場보다 두달뒤 八月秋夕前日

○ 正午頃

○ 白永善과 地主의 딸尹明子の 約婚式날

○ 여비 남북(홍서방)들이 실내를 정돈한다 준비하느라고 분주 들허다

여비 삼순 식탁준비(중앙테이블) 홍서방 배란단에 화분을 갖추울때  
**막이열리기 전에 고태소리**

개 막

삼 순 할아버지 색시택이 부자라쵸

홍 장안 갑부라드라

삼 순 그럼 공부도 많이 했겠군

홍 올봄에 동경에서 나라에서 대학졸업하고 나왔다더라

삼 순 동경나라가 뭐예요

홍 오라 내지 동경말이다

삼 순 흥 그런데 오늘 어딴서 오시길네 정거장으로나간다는거예요

홍 몸이 좀 불편해서 온천에가서 게섯거든

삼 순 혼인전부터 온천이면 신희여행은 어디로가려노

홍 요것아 네걱정이나해라 치마폭 넓은적족말고

삼 순 아이구 할아버지께서도 (재떠리를 들고 무엇인가 궁각한다)  
호 예구 재떠리를 떠러트린다 예구머니 (얼는집는다)

홍 고것봐라 꽤니 마냄에게 생벼락맛는다 화분을너머떡린다구

삼 순 그것보세요 꽤니 생벼락내립니다

홍 에키요년 (대서 바로잡는다)(삼순 흥 웃는다)

영숙 영애 긴치마 들을 입고나오며  
www.kci.go.kr

- 영 속 할아범 엇덧소  
 흥 좃습니다  
 영 속 나는  
 흥 더 좃습니다 아니 서방님의 결혼식날이 아니라 아가씨들의  
 결혼식입니까  
 영 속 그런말이 어딴서  
 흥 허 너무 호사들을 하셧스니말이죠  
 영 애 말을 삼가해  
 흥 네-참 아주 하이칼나상들이되셧습니다  
 박 씨 (안경쓴 크리스찬) 왜 들 왓자하니  
 영 애 글세 할아범이 오늘이 우리들 결혼식날이라는 구료  
 박 씨 니이들이 너무 수선들을 피니까그렇치  
 영 속 에구 어머니두 난몰나  
 영 애 어머니 양복만입다가 긴치마를 입으니가 엇쩨지 거북한데  
 - 도 어울뉴  
 박 씨 대단 어울닌다  
 영 속 삼순아 나도 어울니지  
 삼 순 그럼은요 아조 어울닙니다  
 영 속 에구조화라  
 박 씨 철도 없다  
 영 속 그럼 새언니와 처음 상면을 하는할텐데 옷끌어테 하면 되  
 오  
 흥 누가 옷하고 인사를하나요  
 영 속 할아범은 가만있어  
 흥 네-(뜰로내려간다)  
 박 씨 삼순아, 넌 안에 들어가서 식모들더러 시간이 어그러지지  
 안토록 음식준비를 하라고해라

삼 순 네  
박 씨 자금이 오정이니가 새로운시가령이다  
삼 순 네 (안으로)  
영 숙 어머니 새언니하고 읍바하고 서로 아루  
박 씨 몇번 서로맞나만 봤지  
영 애 그러니가 서로 선-만봤지 연애는 안했다는그런말이구료  
박 씨 낫분년 갖 트니라고 애! 누가 미혼전계집애가 연애소리를  
입에다담든  
영 애 미혼전이기 때문에 연애약이를 자조해야지  
박 씨 액키 저런 요년  
영 애 애게계집애라고 까붙여대가만해  
영 숙 걱정  
영 애 뭐야  
박 씨 형이면 형노릇을해야지  
영 숙 핁  
영 애 그런데 읍바는 어딜갔소  
박 씨 악가 아춤에 일직나갔는데-참 왜 이때 안들어올까  
영 애 어련히 들어올나고설낭  
영 숙 그럼 지금쫘은 가슴이 울녕겨려서 못견디실걸  
박 씨 앵히 계집애들이라고 못할말돌아업서  
영 숙 아-우리읍바는 행복이다.  
박 씨 입들을 닷쳐  
영 숙 네

(電話의 뺨소리)

영 숙 (바드면) 내 내 읍바세요 어딴서요 내내 정거장으로나가시  
는길에요 내 내 집안은준비가 다, 땃새요 호---에구 읍바  
도 내--- 아버지도 나오셋서요 내 내 그러세요 (긋는다)

- 박 씨 아이구 당하다
- 영 숙 *그래게 우리가 뿔랫소 그보세요* 읊바는 더 하다니가
- 영 애 여간
- 박 씨 애그 머리골 앞으다
- 홍 (등장) 목사님 오셋습니다
- 박 씨 예구 이를 엇찌나 신랑신부보담도 목사님이 먼저오시네
- 홍 들어오시라고 해야쥬
- 영 숙 물론이지
- 홍 네-
- 박 씨 너이들은 좀 안으로들어가있거라
- 영 애 왜 우리들이 내외해요
- 박 씨 *내외 안하지만* 너무들 까부러대니가 그러치 (홍서방, 목사를 안내해가지고 들어온다)
- 박 씨 아이구 어서 오십쇼
- 목 사 안녕하세습니까
- 영숙, 영애 어서 오십쇼
- 목 사 오 잘들게셨나- (시계를 보며) 너무 일찍 왔구뇨
- 박 씨 괜찬습니다 일직오세야쥬 이리 안집쇼
- 목 사 괜찬습니다 (안는다)
- (홍서방 목사의 모자와단장을바더건다)
- 목 사 신부는 몇시에 도착이쥬
- 영 숙 **열두시두시반** 차에요
- 영애 안으로 들어간다
- 목 사 그럼 곳 도착이되겟습니다그러, 그런데 대감게서는 어디출입하셋습니까?
- 박 씨 정거장에들 계시담니다
- 목 사 장래 며누님의마중을나가셋습니다그러 허---

박 씨 아냐요 신부아버님되시는분도 오신데요  
영 숙 그러니가 장래사돈영감의마종을 나가셋조신셈이군요  
삼순, 차를갖다놔코 들어간다  
목 사 읍바도 나가셋겅지 (영숙에게)  
영 숙 물론이죠  
박 씨 예그 무슨말소리가 그러냐  
목 사 활발해서 좃습니다  
박 씨 너무도 철이없습니다  
목 사 천만에요  
박 씨 그럼 앉어게서요영애와 박씨(레하고안으로들어간다)  
목 사 내  
(자동차 경적소리)  
영 숙 아이구 오시나들봅니다 (옷맵시를본다)  
홍 (들어오며) 모두들오십니다 (안으로들어 간다)  
영 숙 (안으로들어가며) 어머니 언니  
목 사 (이러슨다)  
(백남작, 윤우식, 윤명자, 백영선 들어온다)  
남 작 어- 목사님 너무기대리셋습니다  
목 사 천방에말씀입니다 어서들오십쇼(목례)  
남 작 이럿케 집이 누추합니다  
윤 겸사의말숨을 다 하십니다  
백 이리얏이십쇼  
윤 네 좃습니다  
(영숙과 영애 나온다 예들을한다)  
영 애 이리얏이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셋습니다  
명 자 괜찬습니다  
윤 그리가 얏이럼

명 자 (고개를 숙인다)

(영숙 영애 명자를 한편 쏘파에다 안친다)

백영선 안으로들어간다

남 작 자 두분 서로인사하시죠

(목사와 윤 서로 례를한다)

남 작 이분께서 이번 저이와 진진 인연을매져주시려는 윤태의 영  
감입니다 (윤명함을 끄네준다)

목 사 네 그러십니까

남 작 그리고 이분께서 오늘 약혼식을 사회해주시겠다는 오목사  
님이십니다

윤 네 그러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 사 천만에요

남 작 자-그럼 이리들좀 앉으시죠

목 사 자-앉으십시오

윤 네 앉으세요

삼인 웃으며 앉는다

목 사 그럼 좋은말씀은 나중 차차들 하시기로하시고 약혼식을 시  
작해보시죠

남 작 참 그러실까요

윤 그러시죠 뭐 다된노릇에 형식에만 매달닐필요도 없으니가  
요

목 사 그릇습죠 자 그러면 당자되는분들도 이리들오시라고하죠

윤 아가 이리온

명 자 (고개를 숙인다)

윤 저건 말이 대학생졸업생이지 저렇게 수줍답니다

목 사 과연 요조숙녀십니다

윤 천만에말씀을 다 하십니다 - 어서

- 명 자 (운 옆에준다)
- 남 작 아가 읍바 나오라고해
- 영 숙 네
- 목 사 그리고 참 신랑 자당되시는분도 나오시라고 하시죠
- 남 작 글세요
- 목 사 뭘 괜찬습니다 약혼식이란것부텨도 신식이니가 서로 내외  
하실필요가 안게실것갓튼데요
- 남 작 그럼 영감 용서해줍쇼- 아가 어머님도 모시고나오너라
- 영 숙 네 (안으로들어간다)
- 운 앉었다
- 명 자 (고개를숙이고 앉는다)  
영숙과영선과박씨부인나온다
- 남 작 이리들오너라  
(목사와운의 부녀이러는다)
- 남 작 그대로들앉어게시죠  
(박씨 고개를숙이고섯다)
- 목 사 이리 와서 앉이시죠  
(명자 옆으로 영애,영숙, 남작다음으로 영선 박씨 두줄로  
앉고 목사는 중앙에 앉는다)
- 목 사 참으로 오늘은 두택의 경사스러우신날이이올시다 조금도  
약혼식이니 사돈이니 하는 격식에 구애되지마시고 서로들  
간담을 상조하시면서 화기애애한 중에지내주시기를 바랍  
니다 (례)자 그럼 **우리먼저 기도를 올리십시다 식을 거행  
하기로 합시다 (막기도를 올리려고 할 때)**
- 삼 순 (다름박질들어오며) 서방님 서방님 웬 여자가 식집들나왔  
다고 대문밖에와 섰습니다.
- 일 동 (고개를 들어 아연한다 각인각양의긴장)

남 작 뭐야  
삼 순 아마 미친년인가봐요  
박 씨 그럼 쪼차보내지않고 왜 돌아 야단이나  
삼 순 원악기운이세요  
박 씨 할아범불너대지못해  
삼 순 내 (나간다)  
남 작 영감 소란해서 죄송합니다  
윤 천만에말씀이심니다  
목 사 자 그러면 다시 조용헌마음으로 기도를올니십시다. 다시조  
용헌마음으로 식을 거행하도록 합시다.

일 동 고개를 숙이려고할 때

삼순의소리 들어오지말어

문이 열니면서 삼순 안으로잡바진다

삼 순 아이구머니

억척이 왜, 막는거야 (들어온다) (보통이를들었다)

일 동 (놀래서 쳐다본다)

남 작 아니 저게 뭐야

박 씨 어서 할아범줍불너라

삼 순 (뜰로 내려가면서) 할아버지할아버지

억척이 아, 내가 바로 차져왔구나 - 여보, 서방님

남 작 아니 그 누구냐? 너 저 여자아니

백 저두 잘 몰습니다

억척이 아니 나를 몰는다구요, 우리집에와서 묵르면서 돼지피먹지  
안엇나베

박 씨 아는구나

백 잘생각이안납니다. 저혈먹고온지도 꽤 한참되니가요

억척이 엇쩌면 저이러케 시침이를 씹담 씹어오

박 씨 그런데 너는 대관절누구나?  
억척이 나요 강원도 오대산사는 김억척이라는요 가시나에요  
박 씨 그런데 왜 왔서  
억척이 나 쉬집가러왔서요 혼인하러왔지요  
박 씨 누구하고  
억척이 여기 저이이하고요  
박 씨 뭐?  
영 애 아그 망측해라  
억척이 머리깎고 긴치마입은 내가 망측하지 아니 왜 내가 망측해  
남 작 저런 밋친년봤나  
억척이 내가 왜 밋쳐요 밋칩스면 팔백리길을 옛새동안에거러왔을  
가  
남 작 여 참 해피할일도 다 만쿤 할아범 어디갓서 할아범  
억척이 할아범 이오면 뭇하다  
영 숙 오바 어서 좀 내쫓차요  
억척이 응 내가 바로 우리 식누님이로구나  
영 숙 시누이  
억척이 그럼 난 너이 읍바하고 혼인정한색시다  
박 씨 아니 저이런밋친년봤나 (때려려고한다)  
백 어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억척이 아이구 바로 우리시어머니로군 (색시절을하며) 어머니 대  
사전에 뵈옵는다고 화내지마세요  
박 영선아 이게 다 엇덧케 된노릇이나  
백 저도 몰눔니다  
남 작 몰느다니 이놈아  
억척이 오 이어른이 식아버니 되실분이군그래  
(색시절을 한다)

- 남 작    엥히-이게 무슨풀이람  
억척이    아버지 괜찬어요
- 남 작    아버지는 무슨아버지야 이 미친년아  
억척이    우리식탁에서는 밋친것밖게는 몰느는모양야 늙은이 젊으  
          니 할것없이
- 목 사    대감 필유곡절인모양입니다 한번 자세히 물어봅쇼
- 남 작    물어봐 뵘함니까  
억척이    물어보지않어도 할말만습니다 아버지
- 남 작    또 아버지냐  
운        대감 그러치안습니다 물론 저도 대감자제는 신용합니다만  
          은 이왕이면 저 여자의 근본을 다 들어서 서로들 찌부드드  
          한것을 없새버리는게 조을것갓습니다
- 목 사    지당하신말습입니다
- 남 작    네 그럼 그래보시죠
- 박 씨    애 너 정말 안밋쳤니  
억척이    왜 밋쳐요 저이이가 우리집에와서 우리아버지가 잡어오는  
          돼지피를 먹엇새요  
          우리아버지는 유명한 포수 예요  
          그런데 날더러 아조 튼튼하고 잘생기고 암전하다고 같이  
          살자고 헛서요  
          그래서 먼저 서울로올나갈테니 추석날이되거든 차저오라  
          고 헛서요  
          그러면 족도리 사모사늑코 기대리다가곳 대사를치르자고  
          언약헛서요 정말예요 그래서 이럿케 차저왔는데 왜 날더  
          러 밋쳤다는거예요
- 박 씨    영선아 정말이나  
백        (어색하게웃으며) 그런게 아닙니다

- 남 작 사내답게 말해라 아니뎨 꼴뚱에 연기가 나겠느냐  
백 아님니다
- 삼 순 (들어오며) 어서 좀 들어오세요  
홍 아니 왜 이러는거냐  
삼 순 저기 저 밋친년좀 보세요  
홍 어디가  
억척이 아 할아버지 나왔소  
홍 아니 억척이 원일이냐  
억척이 추석날 오라고해서 아버지몰내났는데도 날더러 밋쳤다고들  
민하는구료
- 남 작 엇뎡케 된일인가  
홍 네- 허--- 그참 맹냥한일도 다생기는군- 그러게 서방님  
제가 뭐라고엇쫓습니까  
백 그참  
박 씨 할아범 어서말쫓하게  
박 씨 허--- 저계집애는 바로 김포수의 딸인데요.아주 기운이장  
사예요. 엇뎡튼지 산돼지까지 때려잡어요
- 남 작 잡말은 빼놔  
홍 네-그런데 서방님께서 하도 계집애가 항우가트니가 작난  
의 말씀으로 내가 천하에서 제일 잘났다. 너 나고 살고십  
거든서울로 올노너라 러오라고노 그이러셋서요 합니다 아  
니이 그 런 것을 저 미련통이가 고지고대로듯고 이럿케 뛰  
여왔습니다그려 엑키 이 미친년갓트니 아모리산중에서 자  
라났기로서니 어디로 보든지 우리서방님께서 너갓튼것한  
테 장가드실 듯하냐
- 억척이 아니 뭐요 할아버지 (울뜻이된다)
- 남 작 오 그러케 된노릇이군그래

일 동 (웃는다)

남 작 그레게 영선아 사람이란 실업슨말은 못하는 법이니라

목 사 그림읍쇼- 하여간 딱한 여자올시다

박 씨 그레게 무식한것한테는 농담의말도못하는법이니라

남 작 영감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윤 천만예요 허 그러면 그러치 명가자제가 더욱히 높은 교육  
까지바든 청년이 그럴니가있겠습니까

영 애 (명자에게) 조금도 엇덕케 하시지머세요 저의 읍바를 신용  
하세요

명 자 ……

남 작 할아범 이왕온졌이니 밥이나 한끼먹이고 노자돈이나 좀해  
주고 잘 타일너서 내려보내게

홍 네 - 애, 아가 우런나가자 (걷다).

· 억척이 (백은듯이섯다 태산갓치 무겁다)

홍 (달낸다) 어서 나가자 글세 너도 생각을 좀 해야지 한두살  
먹은 어런것도 아니고 - 봐라 저기앞에게신 아씨가 서방  
님의아씨가되실 양반댁아씨다 오늘은 약혼식날이다 너,왜  
하필 이런날왔니 어서 나가자 (걷다)

억척이 (뿌리친다)

홍 에구 애가 (뒤로빗슬한다)

박 씨 어서 끌고나가 이년아 아모리 산속에서자라난 불상졌의 딸  
이라도 어떤경계가 좀 있어야지 어서나가

영 애 애 너는 남부그런줄도 몰으니 아니 놀때를 보고 발을 빠드  
랫다고 너도 네 신분을좀생각해봐야지

영 속 신분은거냥 제 체격도 생각을 해야지 목덕군보담두 더 약  
살막게 마치 닭도적년같이 생긴게 엇덕케 시집을갈생각을  
한담

삼 순 이겼아 송충이는 술넘이나 먹어야한다  
남 작 왔자하지말고 그까짓것한테 그런말을하면 제대로 알아듣기  
나하겟느냐 할아범  
홍 억척아 - 나가자 (꺼러도 꿈쩍안한다)  
박 씨 그것하나 못이기나  
홍 기운이 장사올시다  
박 씨 그래도 저는 계집애년이지 (이러나서 밀친다)  
억척이 (너머진다 업된다)  
박 씨 어서 잡아뜰게  
남 작 어, 이게 무슨꼴이람  
홍 애, 어서 나가자. 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뇨?  
억척이 (이러슨다 눈에 눈물이어렸다)  
홍 애 어서 나가자 응  
억척이 갈테니 놔요  
홍 오냐 어서 나가자  
억척이 할아버지 내가 정말미친년이구료야! 우리아버지가 「서울사  
람밋지마라」  
「시체 청년밋지마라」하시드니 꼭 울흔말씀이구료. 나중에  
는 네가 정간다고하면 총으로 쏘아죽인다고하시는걸, 나는  
그대로 야반중에 도망을 해왔소. 할아버지, 내가 이렇게  
밋친년이되려고아버지까지 거역을했구료

— 사이 —

홍 그레게 얼는 도루내려가야지 안니  
억척이 가리다- 가지만말요 잠간 이것좀보오 (보통이를짚는다 쓰  
레파를 내던진다 이진 두분이 떠러트리고 간께요거라우.  
할아버지, 난 그동안 이 신을 감쳐두고 밤마다 밤마다 혼  
자보고 약이를 했다우 추석날가리다 추석날가리다 이렇게

미친년처럼 중얼거렸다우. 꼭기다려주요 이리면서 흐 내가 정말 밋친년야 (나무앞에싼 꿀을꺼내 흥을주며 그리고)할 아버지 이건저분이 조와하시든 석청요 내 밤중에 도망질 해 오다가 일부러따가지고 왔소 저이가 좋아하는거라고 저이가 좋아하는거라고 바위로 올라가다가 어두어서 떠러 저죽을 번헛소. 예구 차라리 떠러저죽기나했드면조흔겉그 랫지. 할아버지 이왕가지고 온것이니서방님 잡수시라고 꼭 드려요 응 귀하신서방님게좀 드리슈에전 산속에서 잡서보 시든 생각이나 하시라고 (운명자에게) 그리고 아씨 밋친게 집애말 이지만 한마디들어주슈 저서방님은 정말내손목한 번잡지를안으셨소냈다오 내 저 한울을두고 맹세하오 나도 이래서 저서방님의 말을 고지들었소 우리 산골녀석들은 산속 으숙한 데서맛나면 의례히 손목쥐고 꺾여안으려고하 지만 저 서방님만은 그냥멀직 안이 떠러져서 재미있는약 이만해주셨다우 나는 이런데에서 저양반말을 미뎛소 저럿 케 점잔은양반에게 실업슨말이 있을나하고요. 그러니 조금 도 내가 차치온 것을 언짢케 생각말고 평생해로해주오 잘 사려요

아씨- 할아버지 나는가오(쓸쓸히나간다)

남 작 할아범 어서 따라나가게

홍 네 (나간다)

박 씨 별걸.다. 보겠군

영숙 영애 호 그래도 말은곳잘하는걸

목 사 자- 그럼 우리 기도를 올리십시다 식을 거행 합시다

일 동 고개를 숙이려고할 때

백 안됩니다 목사님

일 동 놀낸다

남 작 아니 왜그러니

백 (밖으로뛰어나가며) 할아범 할아범

남 작 영선아

영 숙 읍바

목 사 이건 또 웬일야

(백영선 억척이의손목을걸고 들어온다)

홍 서방님 왜 이러세요 (따라들어온다)

박 씨 아니 너 밋찻니

백 왜 제가미침니가 아버지 오늘 약혼식은 이색시와하겠습니  
다

남 작 아니 뭐

박 애가 정말밋찻나

영 숙 동

영 애 시 읍바

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애들아 내가 나는 조금도미치지는 안  
엇다 나는 오늘에야 지금에야비로소 이세상의 큰뜻을 깨  
달았다

할아범 나는 사실 이억척이를 암소갓치 암호랑이갓치 그  
보담도 작란하기 조흔 동물갓치알고 작난의 말로 놀려대  
줬섯소 놀리면 놀닐수록 이순량한 동물은 밋친듯이 조화  
서날뛰는 것이 엇딴케도 재미가잇섯는지 몰낫소 그리고  
악가이리 처음차 저왓슬때까지도 재미가잇섯소 저런바보  
저런밋친것 하면서 웃읍다못해서 뵈기까지싫엇섯소 그렇  
나 나는 별안간에 정신이 낫소

그렇나 나는 오늘에야 이좁은 방속에 두개의 세상을 발견  
했오이 갈녀 있는 것을발견했소.

입만싸고 거죽만잇고 안팎잇고 계다가헛체면만채리고 겔

느기만하고 건방지기 만한사람들과 그 반대로 착하고기만  
하고 꾀꾀하기만하고 부끄러하기만한사람들을 분명히 알  
아봤소.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한마디 농담을 진정으로듯고 팔백리길을 거러온 한 처녀  
의순정이 엇더케 큰가 하고요.

박 씨 너 정말맞춧구나

백

어머니 아니올시다. 이 꼴을좀보세요. 지금세상에 엇던 여  
자가, 어둔밤중 깊은 산속에가서 이런선물을 따가지고 올  
여자가있겠습니까.

남 작 넌 하나만알고 또 다른하나는 몰으니

백

다른 하나는 몰나도춧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나말씀합니다.

저는 이색시와결혼을하겠습니다.

저는 이색시 때문에 이세상을 사러가는 길이 세상은 정직  
과순정에있다는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흔옷이나 맛난음식을 그냥어더먹고 지내는것보  
다 악의악식이라 도조흔니 스스로버려서 스스로살어나가  
겠다는 결심이생겼습니다.

명 자 아버지 가세요

윤

오냐, 가자. 영이— 대감. 대감덕분에 조흔구경을하고감니  
다. 애, 아가가자.

명 자 아버지 이게 무슨망신에요

윤

난들아니— 영이 참

(부녀 퇴장)

남 작 이놈아 너 때문에 이런꼴을 당한다.

박 씨

글세 애

영 애

오라버니

백        무슨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결심은 안변합니다.  
남 작    액키, 난 몰느겟다. 앵히 (퇴장)  
목 사    그럼, 여러분 우리 정말로 기도를 올리십시다. 다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쫓아 식을 거행합시다.

幕

羅雄 安英—5)

---

5) 나옹과 안영일은 공동연출자로서 대본 마지막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